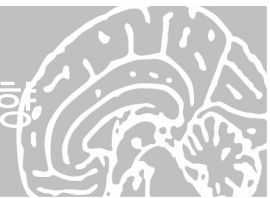


인지검사항목의 급여화 및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 방향



박 건 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Medical Insurance for Neuropsychological Test and Dementia Family Counseling: Background and Plan

KunWoo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2008년부터 추진된 1차와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2015년 12월 17일 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1,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법제화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3차 종합계획은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 부담 대폭 경감된다'라는 공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웨어 구성 보다는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모습이다. OECD와 WHO는 2014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G7 치매수뇌회담실무회의(G7 Dementia Summit Legacy Meeting)에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을 제시한바 있다. 2014년 12월, 중앙치매센터는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를 제출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OECD 권고안과 G7 국가들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의 기초에 맞게 치매 정책의 요소를 재지정하고, 치매관리 핵심정책은 예방부터 진단, 조호, 말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되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정책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관리 꼭지 맨 처음에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정밀검진 비급여 항목(SNSB, CERAD-K)을 2016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초기 검사비의 부담을 더 경감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 진단 치료 돌봄 통합제공이라는 두 번째 꼭지 맨 처음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 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발표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경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unWoo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73, Incheon-ro, Su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920-5347 Fax: +82-10-4721-5347
E-mail: kunu@korea.ac.kr